

1. 생각이 다양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또는 현실감이 떨어질수록 사람을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2. 자신감이 없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 사람을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3. 사람의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보통단계라면 민감하고 감각적인 사람이다.
4. 성취욕구가 클수록,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 냉정할수록 눈을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자신감이 없을수록 또는 스트레스에 둔감할수록 코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6. 우호적이고 인정이 많을수록 혹은 책임감이 강하거나 또는 자제력이 강하거나,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 혹은 낙관적일수록 코를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7.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클수록, 반사회적 성향이 강할수록 입을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8. 생각이 다양하고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또는 체력이 부족할수록 한쪽 귀만 그리는 경향이 있다.
9. 생각이 다양하고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자신감이 클수록 양쪽 귀 크기를 비슷하게 그린다.
10. 책임감이 강할수록, 또는 계획성이 부족할수록 양쪽 귀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다.
11. 우울할수록, 반사회적 성향이 강할수록, 또는 인내심이 강할수록 목을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12. 배려 깊고 관용적일수록, 의존적일수록(심약할수록) 목을 굽게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위축될수록 목을 두껍게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13.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머리 비율을 균형있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14.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는 계획적일수록 머리를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15. 원기 왕성할수록 두 팔의 길이를 균형 있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16. 현실적일수록 다리를 짧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17. 지나치게 허용적일수록 머리카락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8. 느그럽고 공감을 잘할수록 머리카락 표현을 적당한 수준으로 한다.
19. 자극을 추구할수록 단추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20.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클수록, 우울할수록 또는 모험적이고 자극을 추구할수록 팔을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21. 그림의 위치가 위쪽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하려는 것을 나타냄. 혹은 낙천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22. 그림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것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패배감, 불안감, 위화감을 가지고 그 때문에 우울한 기분에 빠져있거나 구체적인 것에 몸을 의지해 안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23. 그림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거나 너무 작은 그림을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그리는 것은 부적응을 의미한다.
24. 전체 공간에 비해 그림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일반적으로 부적절감을 나타낸다.
25. 공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거나, 크기 때문에 종이의 절단면에서 그림이 잘려나간다면 환경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6. 그림이 왼쪽 가장자리에 있을 경우 미래로 도피하고 싶은 바람을 나타낸다.
27. 종이의 양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불안전감과 위축을 의미한다.
28. 아래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우울 의미한다.